

머리말

“한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기독교적 반성”을 특집주제로 결정할 때, 본인은 이처럼 큰 호응이 있을 줄을 짐작하지 못했다. 이번 호는 1편의 특별기고문, 4편의 주제논문, 그리고 2편의 서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천덕 신부의 특별기고 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경제위기를 막을 수 있는가?”에는 현재의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대 신부님의 평소 지론이 다시 한번 펼쳐져 있다.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원인과 처방을 모두 ‘지대(地帶) 가치 임대’(site value rental) 제도의 실행에서 찾고 있는데, 지대가치 임대제도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책임이 한국 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도 있음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회개하여 온 마음을 기울여 기도하면서 고쳐나가도록 아파게 촉구하고 있다.

효성카톨릭대학교의 전강수 교수는 그의 주제논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독교적 대안 - 성경적 토지법과 헨리 조지 경제학에 기초하여 - ”에서 대 신부님과 같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헨리 조지가 주장한 토지가치세제를 시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경제법칙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인 토지법을 실현하는 것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지름길임을 이 논문은 역설하고 있다. 영남대학교의 한동근 교수는 그의 주제논문, “청지기 윤리의 위기와 경제위기”에서 한국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이 청지기 윤리의 타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만연한 도덕적 해이, 토지투기, 지대(地代) 추구 행위(ground-rent seeking behavior)로 말미암아 과잉투자, 생산비용의 증가, 비효율적인 자원 분배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모두 청지기 윤리의 타락에서 기인된 것임을 이 논문은 밝혀 주고 있다. 박득훈 목사의 주제논문, “민주 공동체를 향하여”는 오늘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민주 공동체’라는 대안을 제시한 글이다. 저자는 기독교인이 유의해야 할 경제정의의 원칙들을 하이엑크(F. A. Hayek)와 롤즈(J. Rawls)를 통해 살핀 후, 현재 효율적으로

여겨지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경제정의 면에서는 미흡함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저자는 ‘민주 공동체’가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동반자의 관계로 재정립하고 시장경제의 총량적 효율성과 경제정의의 공동체적 요구를 아우를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남대학교의 조용훈 교수는 그의 주제논문, “신앙과 경제윤리”에서 건설한 경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는지를 설명했다. 이 논문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위해 기독교가 세워나가야 할 윤리 원칙들로서, 인간적 원칙, 민주적 원칙, 사회적 원칙, 생태학적 원칙, 지구적 평등 원칙 등이 자세히 제시되고 있다.

광명 학은교회를 답습하고 계시는 김현진 목사는 대천덕 신부의 저서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5권」을 평해 주셨다. 이 서평에는 회년법을 통하여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어떻게 실현되었고 이 제도가 현재의 경제위기에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는지에 대한 대 신부님의 견해가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다. 한동대학의 강사웅 교수는 이 풍 박사의 저서 「모두가 살맛나는 약속의 땅을 위하여」를 평해 주셨다. 이 글은 특히 통일 후의 토지 제도에 대한 이 풍 박사의 구체적인 대안 - 북한 ; 토지공유 임대제도, 남한 ; 토지가치세 - 에 대해 자세히 해설함으로써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실을 수 있는 원고분량의 제약으로 인해 본 34호에는 일반논문이 실리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또 하나의 매듭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1998년 12월

전 진 우